



겨울

## 1. 오리온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새가 날개를 편 듯한 아름다운 모습의 오리온자리는 1년 중 가장 화려하고 찾기 쉬운 별자리에도 꼽힌다. 4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자리는 세 개의 2등급 별이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한 줄과 그것을 가운데로 하여 큰 사각형의 모습으로 그 품격이 꼭 겨울 하늘의 왕자와 같다고 한다. 육안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성운(M42)의 위엔 삼광, 삼대성, 삼정의 별, 호행성이라고도 불리는 세  $\delta$ ,  $\epsilon$ ,  $\zeta$ 성 등이 있으며 한편,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alpha$ ,  $\beta$ ,  $\gamma$ ,  $\kappa$ 성은 사성이라 불린다.

### 별자리 이야기

오리온에 관한 이야기는 별자리 중에서도 가장 많으며 그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을 꼽으라면 아폴론과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오리온은 사냥을 즐겨 사냥의 신인 아르테미스와 아주 우애가 깊었는데 그녀의 오빠인 아폴론은 그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멀리서 물 위에 머리만 내밀고 있는 오리온을 보며 꾀를 내었다. 아르테미스에게 활 솜씨를 뽐내보라며 자극해 오리온을 노루라고 속여 쏘게 하였고 화살은 명중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사람들이 몰려든 해안에서 머리에 화살을 맞은 오리온을 발견한 아르테미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그를 하늘로 올려 보냈다.

## 2. 마차부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아테네의 왕 에릭토니우스를 기리기 위한 마차부자리는 겨울 하늘의 왕자 오리온자리에게 공격하는 형상을 한 황소자리의 뿌리 끝, 북쪽 하늘에 5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밝은 카펠라성이 0.1등급으로 아주 밝게 빛나고 있으며 가슴에 품은 작은 암컷 염소를 뜻한다. 이 자리를 중국에서는 5차라 불렀으며 동양권에서는 5각성이라 인지해 왔다. 이 북쪽 하늘로부터 높은 카시오페이아자리를 흐르는 은하수 남쪽에서도 마차부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별자리 이야기

아테네의 왕 에릭토니우스는 발이 불편한 신체 장애인이었으나 왕으로서 정치, 전쟁, 정신에 있어 어느 것 하나 못 하는 것이 없어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불편한 모습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 아버지인 철의 신 파이스토스의 도움을 받아 4륜 마차를 발명하였고 태양의 신 아폴론에게도 선물하였다. 이후 그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아다녔으며 다른 말을 탄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빠르게 별판을 달렸다. 이를 가상하게 여긴 제우스는 에릭토니우스의 장부다운 기개와 발명을 치하하여 공을 기리기 위해 별자리로 만들었다.

### 3. 큰개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4계절을 뚫틀어 모든 별 중에서도 가장 밝은 시리우스별은 투명한 겨울 밤하늘에서 더욱 잘 볼 수 있다. 이 별을 정점으로 하여 큰개자리를 이루는 7개의 별 중에서도  $\delta$ ,  $\epsilon$ 성은 1등급에 가까우며 북쪽의 오리온자리에도 견줄 수 있을 만큼 장대하다. 옛날 로마, 희랍 시대에는 태양이 시리우스와 가까우면 유행병이 번진다고 생각하여 불길한 징조로 여기곤 했다. 동양에서는 대성, 청성 등으로 불렸으며 중국에서는 천량이라는 늑대의 눈빛을 연상하였다. 그리고 시리우스와 은하수 너머로 작은 개자리의 프로키온, 오리온자리의 베텔기우스를 연결하여 겨울의 대 삼각형이라 부르기도 하며 그중 가장 밝은 별이 있는 곳을 큰개자리라고 보면 된다.

#### 별자리 이야기

옛날 아크타이온이라는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그의 충실한 사냥개 라크라이푸스와 함께 다니곤 했는데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 노루 무리를 발견한 아크타이온은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라크라이푸스와 노루 떼를 모두 놓쳐버리고 말았다. 한참 가다 보니 빛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길을 물어볼 생각으로 다가갔으나 그것은 목욕을 하고 있는 아르테미스가 발하는 빛이었던 것이었다. 너무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은 아크타이온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앗'하고 신음 소리를 냈고 이에 분노한 아르테미스는 그를 노루로 만들어 버렸다. 아크타이온은 하는 수없이 길을 찾아 다시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사냥개 라크라이푸스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잊고 반가운 나머지 곁으로 갔다가 이내 먹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 4. 쌍둥이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늦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 머리 위 높은 곳을 바라보면 두 개의 밝은 별들이 각각 5~6개의 별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를 쌍둥이자리라 부른다. 이 별자리는 태양의 겉보기 행로인 황도의 3번째 별자리로서 옛날부터 중요한 위치에 해당하였으며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배들에겐 수호신의 역할을 하였다. 이 별들은 동양에서 안경성, 형제성, 두 개의 별, 개 눈 등으로 불렸으며 은하수를 끼고 겨울의 대 삼각형의 북쪽에 위치한다. 쌍둥이자리는 찾기 쉬운 별자리에 속한다. 오리온자리를 시작하는 두 별을 연결, 두 배 정도 연장한 곳에 쌍둥이별을 시작하는 첫째별과 둘째별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오리온자리의 두 번째 별 방향으로 대칭되는 두 별을 찾으면 이 네 별이 쌍둥이별이다.

##### 별자리 이야기

옛날에 스파르타의 왕자들인 캐스터와 폴락스가 있었다. 이들은 각각 스파르타 정실 후예와 제우스의 아들이었으며 제우스의 바람기로 인한 수태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사이가 너무 좋아 항상 될 하든지 함께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전쟁에 참가하였으나 형인 캐스터가 화살 한방에 죽자 너무 슬퍼한 나머지 폴락스는 일부러 화살을 4~5발을 맞고도 안 죽는 자신을 너무도 비관하였다. 그리하여 수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자 제우스에게 간청을 하여 별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형인 캐스터가 화살 한방에 죽은 데 비하여 폴락스는 왜 그렇게 죽을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는 폴락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 불사신의 운명이었다고 한다.

## 5. 황소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제우스의 화신으로 불리는 황소자리는 추운 겨울 밤하늘에 V자를 그리는 별들과 그 주위의 6~7개의 별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V자의 형상은 하이아데스 성단이고 6~7개의 별은 플레아디스 성단이라고 부른다. 작은 망원경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이 플레아디스 성단은 너무나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빛나며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Seven sisters라고 불렀다. 이 황소자리는 오리온과 함께 이야기가 아주 풍부한 별자리이며 옛날의 신성의 잔재라고 불린 계성운(M1)이 함께 있다. 이 황소자리는 오리온자리의 북서쪽에 V자 형상을 주위로 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또 마차부 별자리를 기준으로 찾으려면 이 마차부의  $\alpha$ 성을 포함한 오각형을 찾으면 그의 남서쪽으로 서서히 내려오면 찾을 수 있다.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황소자리는 오리온자리를 기준으로 찾는다. 오리온자리의 벨트부분을 북쪽으로 연장하여 황소자리를 찾을 수 있다. 황소자리의 시작별은 근처 다른 별들과 달리 붉은색을 띠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 별자리 이야기

페키니아의 절세미인 유로페 공주를 본 제우스는 한눈에 반해버렸다. 또 다시 제우스는 꾀를 내어 아름다운 황소로 변했고 그 모습에 시선을 빼앗긴 유로페 공주는 황소를 가까이하다가 등에 올라타 버리고 말았다. 이때를 기다린 제우스는 미친 듯이 뛰어 크레타 섬에 이르게 되었다. 섬에 이르자 제우스는 고백을 하였고 그 근처 섬과 해안 일대를 유로페라고 부를 것을 약속하고 자신과 함께 살 것을 제의했다. 이리하여 오늘의 유럽이 생겨났다고 한다.